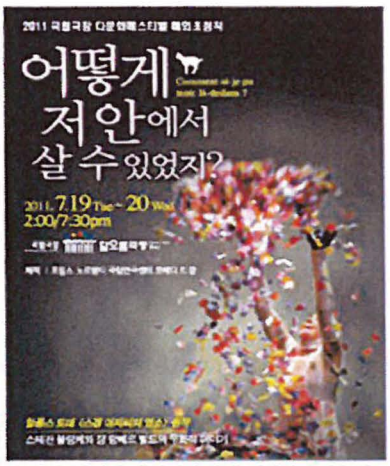
독자광장
이 벤 트
관람후기
할인정보
기사제보
광고제휴문의
채용정보
PRESS CENTER

판타지 동화로의 여행,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알퐁스 도데의 우화 '스갱 아저씨의 염소' 재조명한다

(뉴스컬처=최순정 기자)
2011 국립극장 다문화페스티벌 해외초청작인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연출 장 랑베르 빌드)가 오는 7월 19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연출 장 랑베르 빌드)의 2011년 공연 포스터. ©뉴스컬처 DB

극은 알퐁스 도데의 우화 '스갱 아저씨의 염소'를 원작으로 한다. 자유를 갈망해 들판으로 나간 작은 염소 블랑쉐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과 스타일로 재조명한다.

이번 작품의 무대 연출은 보는 이의 감성과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내 판타지 동화와도 같은 여행으로 이끈다.

특히 뛰어난 안무가 '진케 만흘트'가 만들어낸 배우의 움직임과 신선한 예술적 감수성, 유머적 요소로 관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한편,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는 프랑스 노르망디 국립연극센터 코메디 드 깡이 제작했고, 2010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공연정보]
공연명: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원작: 알퐁스 도데
연출: 장 랑베르 빌드
공연기간: 2011.7.19~2011.7.20
공연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출연: 키아라 콜렛
관람료: 으뜸석 2만원, 버금석 1만원

(감성을 진하는문화신문=뉴스컬처)
연극 뮤지컬 공연 클래식 무용 콘서트 영화 전시 행방
NCTV 위클리컬처 문화타임 컬처TV 인터뷰 공연장 전시장

<저작권자 ⓒ 뉴스컬처(http://www.newsculture.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 [종합]
- [현장] 영화 [거룩한] 제작보고회
- [금주의 문화메모] '뉴스컬처가 간다(27)'(10월3일~10월9일)
- [리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영화 [완득이]
- 10월에 부활한 뮤지컬
- 김태우-송선미가 말하는 연극 [삼두육]

가장 많이 본 기사 [공연문화]
- 김태우-송선미가 말하는 연극 [삼두육]
- [현장] 연극 [신의 아그네스] 프레스콜
- 이한나-연출이 말하는 연극 [삼두육]
- 제3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 [컬처포토] 감성적인 러브스토리를 그린 연극 [연애시대]

Voyage dans un conte fantaisiste

Invité à l'occasion du Festival Multiculturel 2011 de Théâtre National,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mis en scène par Jean Lambert-wild) lève le rideau le 19 juillet dans la salle Dal du Théâtre National de Corée.
Le spectacle est une adaptation de *La Chèvre de M. Seguin* d'Alphonse Daudet. Avec un nouveau point de vue et dans un nouveau style, on revisite l'histoire de Blanquette, la petite chèvre qui part à la montagne en quête de liberté.
La mise en scène nous emmène dans une sorte de conte de fantaisie qui mobilise à l'infini la sensibilité et l'imagination du public.
La gestuelle de l'actrice, imaginée par Silke Mansholt, ainsi qu'une nouvelle sensibilité artistique et des éléments humoristiques vont séduire les spectateurs.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a été produit par la Comédie de Caen, Centre Dramatique National de Normandie. Il a reçu des louanges ardentes lors du Festival d'Avignon en 2010.

Choi Sun-Jung, News Culture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2011년 07월 19일 (화) 09:29:00 박재찬 기자 sunset@prosumer.co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기간 : 2011.7.19 ~ 2011.7.20

장소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시간 : 2시,7시30분

등급 : 미취학아동입장불가

문의 : 02-2280-4114

안폼스 도데 <스갱 아저씨의 염소> 원작
스테판 블랑케와 장 랑베르 빌드의 유화적 이야기

세계적인 연극제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받은 고품격 연극
안폼스 도데의 유화 '스갱 아저씨의 염소'를 원작으로 프랑스의 주목받는 젊은 예술가 장 랑베르 빌드와 스테판 블랑케가 연극화하여 2010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끌어낸 작품이다. 자유를 갈망하여 들판으로 나간 작은 염소 블랑쉐의 이야기로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교훈적인 에피소드로만 취급되었던 그간의 다양한 비전을 넘어서 원작에 충실하되 새로운 시각과 스타일로 재조명하여 심오하면서도 매혹적인 시각 이미지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블랑쉐의 단몸한 자유가 만들어내는 생명력 넘치는 놀라운 이야기
관객의 마음 속을 파고드는 놀라운 예술성으로 표현된 무대 연출은 보는 이의 감성과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내어 판타지 동화와도 같은 놀라운 여행으로 이끈다. 뛰어난 안무가 전체 만찬드가 만들어낸 배우의 움직임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한국어 나레이션의 목소리가 공연의 몰입도를 높이며 신선한 예술적 감수성과 유머적 요소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라벤더 들판에서 만나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동화
아이들을 위한 '고품격 연극'을 지향하는 연출자 장 랑베르 빌드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품을 구상하여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을 형성 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나의 이야기가 세대에 세대를 거쳐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이야기 속에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일단 부모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해하겠지요. 한 아이의 아빠로써 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아이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자유나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구속으로부터 해방과 같은 느낌들을 찾는 거죠. 하지만 "스갱 아저씨의 염소"는또한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는 늑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작은 염소를 잡아 먹어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Un spectacle qui a été comblé de louanges au Festival d'Avignon

Dirigé par deux jeunes artistes français émergeants, Jean Lambert-wild et Stéphane Blanquet, inspirés de *La Chèvre de M. Seguin*, une fable d'Alphonse Daudet, cette pièce de théâtre a reçu des grands éloges lors du Festival d'Avignon en 2010.
L'histoire d'une petite chèvre, Blanquette, sortie à la montagne par désir de liberté, avait été souvent présentée dans diverses versions, comme un simple épisode moralisateur pour les enfants. Mais ce spectacle exceptionnel, se distingue de toutes les autres versions en réinterprétant cette histoire avec une nouvelle vision et un nouveau style, tout en respectant l'original, afin d'inviter le public dans un monde d'images à la fois abyssal et affriolant.
Une histoire étonnante, pleine de la vitalité créée par la délicieuse liberté de Blanquette
La mise en scène étonnamment artistique qui pénètre notre cœur fait ressortir à l'infini la sensibilité et l'imagination du public, afin de l'inviter à un voyage ensorcelant, comme dans un conte féérique. La merveilleuse harmonie de la belle chorégraphie de Silke Mansholt et de la narration en coréen capture les spectateurs qui seront séduits par une sensibilité artistique originale et le sens de l'humour.
Un conte situé sur un pré de lavande, pour les enfants comme les adultes.
Jean Lambert-wild, qui cherche souvent à créer le théâtre haut de gamme pour les enfants, a voulu cette fois transmettre un message à la fois aux enfants et aux adultes, il a réussi à établir de la sympathie entre les enfants et les parents.
«Si une histoire se transmet depuis des générations, elle doit sûrement contenir un message valorisant pour les enfants et aussi pour les parents. Lorsque j'entends cette histoire, je la perçois en tant que parent, tout comme je la raconte à mon enfant en tant que père. Mais j'ai voulu regarder à nouveau cette histoire avec les yeux d'un enfant, en recherchant les contraintes chez les enfants ou la liberté voulue par eux. En même temps, *La Chèvre de M. Seguin* est également une histoire pour les adultes. Il faut accepter qu'il y ait un loup en nous tous et que le loup doive manger cette petite chèvre pour survivre.»

Prosumero.Com

[리뷰] 비정한 진실을 담은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가 -가

"녹대가 입소를 잡아먹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간답니다"

▲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연출 장 랑베르 벨드) 공연 장면. ⓒ 사진=국립극장

(뉴스컬처=권우정 기자)

한 외국인이 무대에 나왔다. 그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거린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는 한국말로 말했다. 아이들도 동시에 "안녕하세요"라 인사한다.

빙긋 웃은 그는 보게 될 연극에 대해 설명한 후 "녹대가 입소를 잡아먹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간답니다"라는 다소 심오한 말로 마무리하며 퇴장한다. 그의 이름은 장 랑베르 벨드.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의 연출가다.

 # 신비한 나라의 불랑케드

큰 어둠 속 녹대의 으르렁 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한다. 서서히 조명이 비춰지면 무대는 여전히 어둡다. 어두운 무대 벽 뒤로 그림자가 비칠 정도다. 무대 장치 역시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무대에는 뚫어진 방이 하나 있다. 밤과 낮이 만나는 모서리가 방의 중심이다. 방은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 모양으로 무대에 배치됐다.

무대는 기묘한 것들로 가득하다. 방 안 왼쪽으로는 상자가 오른쪽으로 화장지처럼 생긴 것이 있다. 화장의 다리들은 높이가 맞지 않는다. 화장은 바닥과 평행이 아닌 다소 어긋난 각으로 놓여 있다. 상자 역시 마찬가지다. 화장은 양을 묶는 구속복인 동시에, 잉크를 공급하고, 꽃을 싸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불랑케드가 스생아저씨의 집을 나와 산으로 갈 때 마름모 모양의 방은 회전한다. 그리고 뚜렷한 구성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방이 나타난다. 이동하는 방식은 다소 섬뜩하다. 방이 회전하는 동시에 불랑케드는 종이로 된 벽을 칼로 찢고 그것을 통과한다. 이 극은 3개의 방이 차례대로 회전되며 진행된다. 특히, 녹대의 양이 싸우는 장면에서는 무대가 빠르게 회전하며 녹대와 양의 치열한 싸움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연출 장 랑베르 벨드) 공연 장면. 입소 불랑케드가 스생 아저씨의 집을 간라 회려한 종이를 뿌린다. ⓒ 사진=국립극장

아시간 헤드라인 뉴스
장애인 감간죄 3년→5년 상향… 제3자 고발도 ..

실시간 급상승 관심뉴스
시사 스포츠 연예 생활/문화
1 성추행 고대 의대생 · 검찰 오두 형...
2 성시경, 일반시청의 2.5배 '유가 폭...
3 집단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 " 무서...
4 '술때문에..' 여곳땀 성폭행한 뒤 ...
5 다섯달동안 4점 지상, 만여홍이 무...
6 "포 후가, 성시경 117일 vs 포인성 ...
7 " 김태희 기다렸는데.." 정소액 선...
8 신지호, 폭탄주 8잔 먹고 '100군 도...
9 동아리 지원금 '0원'...대학 동욱국...
10 휘체어 단 스타트 정스, 부인과 함...
1/3

 # 기묘한 전개 방식

이 작품은 인생의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나 전개된다. 원소가 주인공인 이 극에는 사람 스생아저씨는 등장하지 않는다. 의자에 놓여있는 사람 형상의 인형이 스생 아저씨다. 원소는 몸짓으로만 극을 이끌어간다. 그 대신 여자 성우의 한국어 나레이션이 있다. 나레이션은 원소 블랑케트의 감정부터 스생 아저씨의 마음까지 모두 설명해준다.

 # 기묘한 전개 방식

이 작품은 인생의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나 전개된다. 원소가 주인공인 이 극에는 사람 스생아저씨는 등장하지 않는다. 의자에 놓여있는 사람 형상의 인형이 스생 아저씨다. 원소는 몸짓으로만 극을 이끌어간다. 그 대신 여자 성우의 한국어 나레이션이 있다. 나레이션은 원소 블랑케트의 감정부터 스생 아저씨의 마음까지 모두 설명해준다.

블랑케트는 무대 바닥에 있는 뚜껑을 연다. 그리고 흰 종이 하나씩을 꺼내더니 기기에 하나씩 집어넣는다. 동시에 여자 성우는 "스생 아저씨의 원소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차례대로 죽었어요"라 말한다. 이렇게 이 연극에는 생위는 단순하지만 섬뜩한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블랑케트가 스생 아저씨의 집을 나가 산으로 간다. 그는 곳곳을 방황하고 신이나 떠어 논다. 이 장면은 원소가 스생 아저씨의 몸을 가르고 형형색색의 종이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형상화 됐다. 스생 아저씨 인형에서 쉬없이 나오는 화려한 종이들이 무대를 뒤덮는다. 무채색이었던 무대가 순식간에 화려하게 변하자 아이들은 소리를 지른다. 기존의 연극에서 언제나 주체였던 인간이 인형으로 사물화 되는 것에 모자라 배경이 된다.

***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는 연출가의 의도대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며 마주치는 느낌들을 함축해 담고 있다. 자유를 누린 원소는 늑대에게 잡아먹힌다. 그것은 블랑케트가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아이들은 어두운 무대와 기묘한 무대 장치들, 잡아먹히는 원소를 통해 무엇을 봤을까.

〔공연정보〕
공연명: 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원작: 알퐁스 도데 '스생 아저씨의 염소'
연출: 장 랑베르 빌드
무대디자인: 스테판 블랑케
공연기간: 2011년 7월 19일~2011년 7월 20일
공연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출연: 시아라 콜렛
관람료: 으뜸석 2 만원, 비금석 1만원

(김성윤신하는문화신문=뉴스컬처)
연극 뉴지컬 공연 문래식 무용 콘서트 영화 전시 행방
NCTV 뉴스컬처TV 문화라인 컬처TV 인터뷰 공연장 전시장
<저작권자 © 뉴스컬처(http://www.newsculture.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우정 기자
play@newsculture.tv

올려 0 내려 0

3/3

네이트 뉴스 인사이드

3/3

네이트 뉴스 인사이드

〔세계〕 '민#'타고 세계 곳곳 '민글 배우기' 열풍

싱싱정보창고

1/2

정치 뉴스

조회순 댓글순 동리순

1 YG 클럽파티 지드래곤 바닥, 맞고 욕하라
2 국감부 "성시경 유가는 이례적…무대정 소...
3 " 김태희 기다렸는데..." 지스의 선공 " S...
4 검찰 찬이습, 핵심 학보 공개 '씨시+황순 ...
5 성추행 고대 의대생 · 검찰 모두 항소
6 성시경, 협반사용의 2.5배 '유가 폭에' 조...
7 집단성폭행 후 성여자 강요 " 무서운 10대...
8 여중 분나 -카카오톡 유대폰결제 못만다
9 신지호, 복단주 8잔 먹고 '100분 토론' 출...
10 스타쿠레이어 | 넌미의 새로운 맵 (3)

1/2

소셜에드 | 내공 속에 대기?

웹툰속에 내가 나왔어!

투데이 인포 AllonNET

송시외자 마자 출발위 연예인화살표..

점심에서 세일 뿐 세로! 1회 1만원
인증수험는 가려 장장과세 49만원!
우고NO! ★NoS(노스)장어구성★

Un théâtre parlant de la vérité impitoyable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En apprenant que le loup dévore la chèvre, on devient adulte.»

Un étranger se présente sur la scène. Les enfants le regardant ont les yeux qui brillent de curiosité.
«Bonjour, les enfants !», dit-il en coréen. Les enfants répondent tous en même temps : «Bonjour !».
Avec un léger sourire, il explique le spectacle qui va être présenté puis quitte la scène en laissant une dernière phrase qui nous laisse réfléchir : «En apprenant que le loup dévore la chèvre, on devient adulte». Il s'appelle Jean Lambert-wild, le metteur en scène de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Blanquette au pays des frissons
La pièce commence avec le grognement du loup dans le noir. La lumière entre peu à peu mais la scène est toujours sombre. Sur le fond de la scène, on voit des ombres. Les décors créent également une atmosphère sinistre. Il existe une chambre tordue sur le plateau. Le coin où se rencontrent les deux faces est le centre de l'espace, espace qui est installée en losange.
La scène est remplie d'objets étranges : une boîte à gauche de l'espace, une sorte de table à droite. Les pieds de la table ne sont pas de la même longueur et la table n'est pas posée parallèlement au sol, plus ou moins en pente, tout comme la boîte. La table est à la fois l'entrave qui attache la chèvre et un outil qui fournit l'encre et qui trait le lait.
Lorsque Blanquette va à la montagne après avoir quitté M. Seguin, la chambre en losange tourne. Par la suite, il apparaît une autre chambre, avec la même disposition mais subtilement différente de la première. La façon de se déplacer est plutôt violente, c'est-à-dire que Blanquette déchire le mur en papier avec un couteau, en même temps que la chambre tourne, puis passe par cette paroi déchirée. En effet, le spectacle se déroule au gré de trois chambres tournantes qui apparaissent tour à tour. D'ailleurs, ce plateau tournant fera l'effet de donner l'ampleur dramatique au combat acharné une rotation rapide, lorsque la chèvre se bat contre le loup.

Une curieuse méthode du développement
Le spectacle échappe à la logique générale et la banalité. On ne voit pas M. Seguin en personne. La marionnette en forme d'être humain, assis sur la chaise, est M. Seguin. La chèvre dirige le spectacle uniquement avec les gestuelles, assistée par une narratrice en coréen. La narration nous explique les sentiments de la chèvre Blanquette, mais aussi ceux de M. Seguin.
Blanquette ouvre un porte placée sur le sol puis y met des paquets blancs, un par un. Simultanément, la narratrice dit «Un, deux, trois... les chèvres de M. Seguin sont mortes les unes après les autre.» Ainsi, le spectacle dispose par ci par là d'éléments donnant une sensation effrayante, derrière des gestes simples.
Blanquette quitte M. Seguin pour partir à la montagne. Elle découvre le champ de fleurs et saute de joie dans tous les sens. Cette joie est figurée par une scène où la chèvre sort du corps de M. Seguin des confettis de toutes les couleurs qui couvrent la scène. La scène qui était achromique devient radieuse, les enfants crient d'excitation. L'Homme, qui était plutôt le sujet dans les autres pièces, est exprimé par un objet, une marionnette, plus loin de là, il devient le décor.
L'intention du metteur en scène,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implique des sentiments ou des sensations qu'un enfant rencontre en devenant adulte. La chèvre qui a obtenu la liberté est mangée par le loup. C'était ce que Blanquette devait assumer en gagnant la liberté. A travers la scène sombre, les décors étranges et la chèvre qui se fait manger, que les enfants, auraient-ils vu ?

Jin Woo-Jung, News Culture

2011 국립극장 다문화페스티벌 해외초청작

프랑스 '코메디 드 캉' 극단의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송민숙(연극평론가)

때 2011년 7월 19일~20일 | 곳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원작 알퐁스 도데 연출 장 랑베르-빌드 | 극단 프랑스 코미디 드 캉(노르망디 국립극장) | 출연 키아라 콜렛

들어가며

프랑스 극단 '코미디 드 캉' 의 어린이연극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Comment ai-je pu tenir □-dedans?*>를 관람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2011년 국립극장 다문화페스티벌 초청작으로 지난해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원작인 <스갱 아저씨의 염소>는 우리에게 <별>로 잘 알려진 프랑스 소설가 알퐁스 도데(1840-1897)의 단편이다. <스갱 아저씨의 염소>는 <별>, <마지막 수업> 등과 함께 그의 단편집 <풍차간 소식 *Lettres de mon moulin*>(1866)에 실려 있다. 대학시절 프랑스문학 강독수업에서 도데를 읽었던 기억, 남프랑스의 지방색과 서정성을 환기시키는 라벤더 향기를 떠올리며 기대감을 가지고 공연장을 찾았다.

언어와 신체의 분리

공연에 앞서 연출가 장 랑베르-빌드가 무대에 등장했다. 그는 어린이관객을 향해서 "공연에 나오는 늑대나 염소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만큼은 진짜다" 라고 공연을 소개한다. 이어서 해설자의 목소리가 극 줄거리를 요약해서 들려주는 짧은 프롤로그가 있다. 스갱 아저씨의 작은 염소가 자유를 찾아 우리를 탈출해서 들판으로 갔다는 것, 이미 늑대에게 여섯 마리의 염소가 희생된 이후, 또 다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라고 말해준다. 프롤로그의 역할은 고대비극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려주어 관객이 등장인물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하나 하나에 집중하던 극의 여러 상황이 야기하는 파토스들을 세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일 터이다.

무대에는 대사 없이 마임만 하는 오직 한 명의 (여자)배우가 있을 뿐이다. 배우는 몸짓을, 대사나 설명은 해설자가 목소리만 들려주는 식이다. 그리고 사람 또는 늑대로 보이는 커다란 인형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스갱 아저씨와 염소, 그리고 늑대의 등장을 기대한 관객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 무대의 인물과 인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존재가 다 연상되기 때문이다. 배우는 주로 스갱 아저씨의 작은 염소 역할을 수행하는 퍼포머이다. 그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내레이션의 내용에 따라 퍼포머는 염소로 보이기도 하고 스갱 아저씨로 보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뒷모습만 보이는 인형 형상 또한 스갱 아저씨이거나 늑대로 보인다. 즉 배우나 인형이 고정된 인물을 구현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주역 또는 그의 상대역으로 유연하게 역할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색다르다.

세 개의 공간

달오름극장 무대 위에 회전원반을 활용한 작은 무대가 가설되었다. 회전무대 원반을 위에서 보아 삼등분하여 세 개의 작은 방으로 만든 것이다. 방과 방 사이의 벽은 종이로 막아서 원반이 삼분의 일 회전하면 한 번에 방이 하나씩 보인다. 세 방에는 모두 동일하게 작은 구유, 탁자와 의자 같은 집기와 인형이 놓여 있고, 약간 색채나 분위기만 다를 뿐 동일한 방식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비극의 무대장치인 '페리악토이'(삼면으로 된 이동식 무대배경막)를 창의적으로 응용한 느낌이다. 동일한 크기의 공간이지만 조명의 빛이나 색에 따라 각 방의 분위기는 서로 매우 다르다.

첫 번째 방은 스갱 아저씨의 집 또는 우리의 닫힌 공간을 구현한다. 우리에 있던 작은 염소 블랑켓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이미 여섯 마리의 염소가 희생된 것을 알면서도 자유를 찾아 들판으로 떠나기까지의 이야기가 마임과 대사를 통해 전해진다.

이어서 퍼포머(염소)가 옮겨간 두 번째 방은 자유로 가득한 녹색의 들판이다. 바닥도 벽도 온통 푸른빛을 띠고 벽에는 꽃빛의 조명이 어려 있다. 어린 염소는 환호한다. 뒷모습을 보이고 앉아있던 인형의 배속에서 꺼낸 꽃잎을 하늘 높이 날리며 염소는 기쁨에 사로잡힌다. 마치 그

시인이 자유를 구속받기 싫어서 안정된 돈벌이인 잡지사 자리를 거절하자 그를 나무라며 일자리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한다. 말하자면 화자는 자유를 위해 우리를 박차고 나가 목숨을 잃은 염소이야기를 설득의 증거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의 나무람 속에는 은연중에 부러움이 묻어난다. 문학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교훈으로만 일관하는 진술이라면 누가 그것을 읽겠는가? 공연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에서는 염소이야기를 앞뒤로 감싸는 틀인 그랭구아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과연 어린이관객들은 이 연극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 연출가 장 랑베르-빌드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저는 아이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자유나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구속으로부터 해방과 같은 느낌들을 찾는 거죠. 하지만 <스갱 아저씨의 염소>는 또한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늑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작은 염소를 잡아먹어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즉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잠재한 '늑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염소'로 비유되는 그 무엇을 죽여야만 한다는 연출의 설명은 인생에 대해 냉철하면서도 냉혹한 비유로 느껴진다. 마땅히 인생은 잔혹한 것일 터이고, 스갱 아저씨네 염소의 우화에 대한 연출의 해석은 아마도 분명 옳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뜻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설명은 잠시 유보해두자. 그보다는 오히려 평범하게, '늑대'로 표상되는 삶의 절곡 앞에서 자신의 소망을 위해 무모할 수도 있는 용기를 내고 실천하는 이야기로 공연을 해석하고 싶다. 그래서 자신이 속했던 작은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며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라고 거리를 두고 자인식할 수 있는 힘이 도대의 우화가 강조하는 교훈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극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공연에서 다소 암담하고 비중 있게 표현된 죽음의 장면보다는 염소가 '늑대'의 뱃속에서 꺼낸 꽃잎을 높이 날리며 환호하던 기쁨의 장면이 아닐까?

2010년 아비뇽 페스티벌 자료에 실린 연출가의 대담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는 내 작업을 이론화하지도 않고 거의 제어하지도 않는다. 나는 내 작업의 재료이자 무명씨(익명의 사람)이다. 중요한 건 그것이 관객과 만나는 점이 된다는 것이고 관객은 질문을 하거나 내 상상적 작업을 분류하고 재조직한다." 공연에 대해 각자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가며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와 함께 페스티벌에 초청된 호주 공연 <숲트부쉬>는 어린이관객을 무대로 직접 끌어들이는 인터랙티브 공연이었다. 무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관객이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고, 무대바닥에 호주의 대자연을 테마로 한 영상을 투사했다. 어린이관객들은 퍼포머들의 유도에 따라 무대 위의 영상을 따라가거나 피해가며 자연스럽게 공연의 일부가 되었다. <숲트부쉬>의 경우 영상과 몸짓을 가지고 관객의 동참을 이끄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어서 완성도는 미진했지만 앞으로 공연을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여지나 응용가능성이 풍부했다. 반면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의 경우 도데의 원작으로 만든 더 이상 나은 공연은 없으리란 생각이 들만큼 흥미롭고 완성도가 높았다.

여름방학 시기로 접어들어서인지 어린이관객을 위한 좋은 공연들이 최근에 많이 눈에 띈다. 아이들이 유년기에 관람한 공연이 모두 파악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이미지만으로도 뇌리에 깊은 인상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풍성한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공연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송민숙(ryu1501@kornet.net)

연극평론가, 불문학박사, 연세대, 순천향대 강사

프랑스 고전비극 장 라신 전공

저서-논문집 <연극과 수사학>, 평론집 <언어와 이미지의 수사학>

역서-<페드르>, <이피제니>, <바자제>, <프랑스 고전비극>, <서양연극의 무대장식기술>

<사진설명>

사진1 스갱 아저씨의 우리를 벗어나려고 끈을 풀어뜯는 염소 블랑켓

사진2 스갱 아저씨의 목장을 벗어나 들판에 도착하여 자유를 만끽하는 염소 블랑켓

사진4 환희에 찬 염소 블랑켓

사진3 새벽까지 늑대와 싸우다 최후를 맞이하는 염소 블랑켓

Sélection du Festival Multiculturel 2011 de Théâtre National

Prologue

J'ai assisté au spectacle pour enfants,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présenté par la Comédie de Caen venant de France. La pièce, qui avait eu un grand succès au Festival d'Avignon l'année dernière, est invitée à l'occasion de la deuxième édition du Festival Multiculturel 2011 du Théâtre National. L'œuvre originale est *La Chèvre de M. Seguin*, un conte d'Alphonse Daudet qui nous est bien connu en tant qu'auteur de *Les Etoiles*. D'ailleurs, *La Chèvre de M. Seguin* se trouve, avec *Les Etoiles* et *La dernière classe*, dans son ouvrage *Lettres de mon moulin* (1866). Avec le souvenir du cours de littérature, autour d'Alphonse Daudet à l'université, le parfum de lavande rappelant la couleur du Sud de la France et le lyrisme, je me suis rendue au théâtre.

Dissociation du langage et du corps

Avant de commencer le spectacle, Jean Lambert-wild, le metteur en scène, s'est présenté sur la scène. «Le loup ou la chèvre dans le spectacle ne sont pas vrais. Vous n'avez pas besoin d'avoir peur. Mais les émotions que vous allez ressentir sont, elles, bien réelles.», dit-il aux enfants, en présentant le spectacle. Le spectacle commence par un petit prologue où le narrateur raconte le résumé de l'histoire : la petite chèvre de M. Seguin s'est échappée pour chercher la liberté dans la montagne. Mais elle sera tuée par le loup, comme les six autres chèvres de M. Seguin. Le prologue a pour fonction de raconter en avance l'évènement à venir, comme dans le cothurne, pour que les spectateurs puissent mieux se concentrer sur les sentiments des personnages. Ce n'est pas la conclusion qui est importante. En se plongeant dans chaque scène, une par une, on pourrait apprécier le pathos engendré par les diverses circonstances dans le spectacle.
Sur la scène, on voit une seule actrice qui ne fait que mimer, sans parole. L'actrice mime et une voix-off nous lit les paroles et les descriptions. On voit également le dos d'une grande marionnette qui a l'air à la fois d'un homme et d'un loup. Mais les spectateurs qui s'attendaient à voir M. Seguin, la chèvre et le loup ne seront pas déçus pour autant parce qu'ils peuvent parfaitement les imaginer à partir de l'actrice et de la marionnette, d'une façon ou d'une autre. L'actrice représente principalement la petite chèvre du M. Seguin. Suivant la narration et la représentation de l'actrice, celle-ci devient la chèvre ou M. Seguin, comme la marionnette qui devient M. Seguin ou le loup. L'actrice et la marionnette n'expriment pas un personnage fixe mais jouent librement un rôle ou un autre selon la circonstance.

Trois espaces

Sur la scène de la salle Dal, un petit plateau tournant est installé. Le plateau rond, divisé en trois par les parois en papier, est constitué de trois petites pièces qui se montrent une par une au fur et à mesure que le plateau tourne d'un tiers. Dans les trois pièces, il y a une petite auge, quelques meubles, tels qu'une table, une chaise, etc., ainsi qu'une marionnette. Chaque pièce est légèrement différente au niveau de sa couleur et de l'ambiance mais composées de la même façon. Le système de periaktoi de la tragédie grecque antique semble appliqué d'une manière moderne et créative. Les surfaces des pièces sont identiques mais par le jeu de lumière et de couleur, chacune donne une ambiance particulière.
La première pièce représente la maison de M. Seguin ou la cage fermée. La gestuelle et la narration racontent l'histoire de la petite chèvre Blanquette, enfermée dans la cage, qui ne supporte plus l'ennui et s'échappe à la montagne par soif de liberté, alors que les six autres chèvres avaient déjà été victimes du loup.

L'actrice (la chèvre) se déplace dans la deuxième pièce qui est une prairie verte, plein de liberté. Le sol et les murs sont tous verts et les lumières à émail des fleurs illuminent le mur. La petite chèvre crie de joie. Toute excitée, elle sort des pétales du ventre de la marionnette puis les lance en l'air. On a l'impression que ces pétales en papier diffusent du parfum de lavande. La petite chèvre, enfuie de chez M. Seguin, se moque de la minuscule cage en la regardant de loin, lorsque l'on entend la narration dire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En se disant par répétition «mais comment ai-je pu vivre là... ? Mais comment... ?», elle savoure la liberté obtenue avec une grande joie.
La troisième pièce est le soir et la nuit, un espace sombre à couleur morose où la petite chèvre tremble par peur de la mort, en présence du loup qui la menace. C'est aussi le lieu où elle se bat courageusement contre le loup, en risquant sa vie, jusqu'à l'aube où la mort s'approche de Blanquette, toute épuisée. Le combat entre le loup et la chèvre est exprimé par l'actrice qui traverse en courant les trois pièces en déchirant les murs en papier. Le dynamisme du mouvement est accentué par le plateau qui tourne à grande vitesse. Les espaces n'étaient pas juste trois petites pièces. De la résistance contre la contrainte, jusqu'à la joie de la liberté, voire jusqu'à la peur, dont on ne connaît pas la fin, face à la mort, ces espaces se sont élargis à l'infini. La volonté désespérée de la petite chèvre qui affronte le loup, la tension dans le conflit acharné, la peur face à la cruauté de déchirer les chairs, toutes ces émotions sont transmises d'une manière vivante. Finalement, la mort de la petite chèvre est tragiquement mise en scène avec son cadavre piteusement étendu sur la table.
La gestuelle minutieuse, qui attire parfaitement l'attention du public du début jusqu'à la fin, et les sons diversifiés donnent l'effet de remplir la scène comme s'il y avait beaucoup de personnages. La nuit tombe et sous la menace mortelle du loup la chèvre écrit en noir sur le mur «déjà ?» en gros. C'est un outil qui visualise le sentiment d'oppression et la peur que ressent la chèvre. Les sons sont un autre protagoniste qui suscite des sentiments et des pathos divers chez le public. Une pièce de théâtre constituée uniquement de narration et de mimes, sans parole, on imaginerait facilement s'ennuyer. Mais ce spectacle n'est absolument pas ennuyeux. L'histoire est toute simple mais le narrateur nous parle en continu de situations qui n'arrêtent pas de changer et les compositions de sons créatifs et variés dont on n'a jamais entendu nulle part sont étonnantes.

Le message du spectacle

Dans l'œuvre originale de Daudet, *La Chèvre de M. Seguin* est un exemple donné pour avertir que le prix à payer pour avoir la liberté est élevé. Lorsque le poète Pierre Gringoire refuse la place de chroniqueur d'un journal pour pouvoir garder sa liberté, Daudet l'incite à accepter ce travail, voire le blâmer. Il a utilisé donc l'histoire de la chèvre, qui a perdu sa vie en s'échappant de la cage pour la liberté, comme argument de persuasion. Cependant, sa réprimande dégage discrètement de l'envie. Si la littérature ne faisait que donner des leçons de morales, qui voudrait la lire ? Le spectacle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ne mentionne pas Gringoire, qui est un cadre englobant l'histoire.
Comment les enfants ont-ils perçu ce spectacle ? Quelle était l'intention du metteur en scène, Jean Lambert-wild ? Ecoutons-le. «J'ai voulu revisiter cette histoire avec les yeux d'un enfant, chercher la liberté que les enfants souhaitent ou la libération des contraintes dont ils sont l'objet. *La Chèvre de M. Seguin* est aussi une histoire pour les adultes. Il faut accepter qu'il y ait le loup en nous et qu'il doit dévorer la petite chèvre afin de poursuivre la vie ».
Une histoire des adultes qui doivent assumer l'existence du «loup» en soi et qu'il faut tuer «la petite chèvre», cette explication de Jean Lambert-wild me paraît trop lucide voire dure comme regard sur la vie. La vie est sûrement cruelle et l'interprétation de la fable de la chèvre de M. Seguin n'a pas tort. Toutefois, laissons pour l'instant de côté les explications que l'on a du mal à accepter sentimentalement. J'ai plus envie d'interpréter ce spectacle tout simplement comme le courage, peut-être aveuglé, d'agir au profit de son espoir, face au joug ou à l'infortune

de la vie, symbolisé par «le loup». Regarder de loin le petit monde auquel on appartenait puis se dire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ce pouvoir de réapprécier sa vie avec un peu de distance, ne serait-ce pas la leçon qu'a voulu nous donner la fable de Daudet ? Pour la même raison, la scène la plus touchante a été, du moins à mes yeux, celle de la chèvre qui lançait en l'air les pétales sortis du ventre «du loup» et criait de joie, plutôt que celle de la mort, exprimée d'une façon assez noire et lourde.
Le metteur en scène a été interviewé lors du Festival d'Avignon en 2010 : «Je ne théorise ni ne contrôle, ou très peu, mon travail. Je suis à la fois la matière de mon travail et quelqu'un d'anonyme. L'importance est la rencontre de tout cela avec le public qui va interroger ou répartir puis réorganiser mon travail imaginaire». Il est naturel que sur un spectacle, les opinions de chacun soient différentes.

Epilogue

En même temps que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un spectacle australien *Saltbush* a été invité au festival. Ce dernier est un spectacle dit «interactif» qui invite les enfants sur la scène. Les spectateurs, assis de chaque côté, traverse la scène sur laquelle des images au thème de la nature de l'Australie, sont projetées. Au gré des mouvements des acteurs, les enfants deviennent d'une façon naturelle une partie du spectacle, soit en suivant des images apparentes sur la scène soit en évitant ces images. *Saltbush*, qui partait de l'idée de susciter la participation du public par les images et les gestes, semblait loin de la perfection au niveau technique mais il possède un grand potentiel d'adaptation qui lui permettra de devenir un spectacle encore plus créatif et original. Quant à *Comment ai-je pu tenir là-dedans ?*, je me demande s'il pourrait y avoir un autre spectacle adaptant les œuvres de Daudet meilleur que ce spectacle qui offre un tel plaisir et une grande perfection.
De nombreux spectacles de qualité attendent leurs publics enfants ces derniers jours, sûrement pour les vacances. Les enfants ne pourront pas saisir tous les spectacles vus dans l'enfance mais du moins les impressions qu'ils en ont eues resteront sans doute dans leurs têtes. Je souhaite que plus d'enfants puissent rencontrer, dans un environnement encore meilleur, des spectacles qui leur permettront d'enrichir la sensibilité.

SONG Min-Suk*
ryu1501@kornet.net

*Critique de théâtre, docteur en littérature française, professeur de l'université d'Yeonse et l'université de Sunchon Hyang
Diplômée en Jean Racine, la tragédie classique française
Ouvrages : recueil d'articles *Le théâtre et la rhétorique,* recueil de critique *La rhétorique du langage et de l'image,* traductions *Phèdre, Iphigénie, Bajazet, Tragédie classique de la France, Scénographie du théâtre occidental.*

2011 국립극장 다문화페스티벌 **프랑스 초청 연극**
제작_노르망디 국립연극센터 코메디 드 깡

어떻게 저안에서 살 수 있었지?

Comment ai-je pu tenir là dedans ?
How was I ever able to live in there ?

2011. 7.19 Tue ~ 7.20 Wed 2:00 / 7:30pm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Small Hall Dal

관람료 으뜸석 2만원, 버금석 1만원
문의/예매 국립극장 고객지원실 02)2280-4114~6 www.ntok.go.kr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옥션 1566-1369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ntok회원에 가입하시면 온라인 예매시 관람료가 할인됩니다.)

*한국어 나레이션 / 영문자막 제공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Seat Prices R 20,000 / S 10,000
Box Office 02-2280-4114~6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www.ntok.go.kr
1544-1555 interpark / ticket.interpark.com
1588-7890 ticketlink / www. ticketlink.co.kr
1566-1369 auction / www.auction.co.kr

*English subtitle available / Narration in Korean
*Admission for ages 8 and above

오시는길

버스
간선(파랑)버스 420번 국립극장 하차,
144번, 301번 장충동 하차 후
국립극장 셔틀버스 이용
지선(녹색)버스 0212번 장충동 하차 후
국립극장 셔틀버스 이용
광역(빨강)버스 9410번 장충체육관 하차 후
국립극장 셔틀버스 이용
남산순환(노랑)버스 02번, 03번 국립극장 하차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②번 출구(태극당 앞)에서
국립극장 셔틀버스 이용 무료
5분 소요 / 공연시간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분 간격 운행
⑥번 출구에서 02번 노란색 남산순환버스 이용
⑥번 출구에서 산책로 이용 도보 15분 소요
〈3, 4호선〉 충무로역 하차
②번 출구(대한극장 앞)에서
02번 노란색 남산순환버스 이용
〈2, 4,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하차
⑧번 출구에서
420번 (파랑 간선버스) 이용
〈6호선〉 한강진역 하차
②번 출구에서 03번 노란색 남산순환버스 이용

2011 국립극장 다문화페스티벌 해외초청작
2011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Multicultual Festival Invited Performance

어떻게 저안에서 살 수 있었지?

프랑스 노르망디
국립연극센터
코메디 드 깡
Comédie de Caen
Centre Dramatique National
de Normandie

Comment ai-je pu tenir là dedans ?
How was I ever able to live in there ?

2011. 7.19 Tue ~ 7.20 Wed 2:00 / 7:30pm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Small Hall Dal

알퐁스 도데 〈스갱 아저씨의 염소〉 원작
스테판 블랑케와 쟝 랑베르 빌드의 우화적 이야기
Based on Mr Seguin's Goat by Alphonse Daudet
A fable by Stéphane Blanquet & Jean Lambert-wild

주최 국립극장 후원 KB국민은행 CROWN 호텔
제작 Comédie de Caen-Centre Dramatique National de Normandie

2011 국립극장 다문화페스티벌 해외초청작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었지?

제작 | 프랑스 노르망디 국립연극센터 코메디 드 깡

알퐁스 도데 〈스갱 아저씨의 염소〉원작
스테판 블랑케와 쟝 랑베르 빌드의 우화적 이야기

세계적인 연극제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받은 고품격 연극

알퐁스 도데의 우화 '스갱 아저씨의 염소'를 원작으로 프랑스의 주목받는 젊은 예술가 쟝 랑베르 빌드와 스테판 블랑케가 연극화하여 2010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끌어낸 작품이다. 자유를 갈망하여 들판으로 나간 작은 염소 블랑쉐의 이야기로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교훈적인 에피소드로만 취급되었던 그간의 다양한 버전을 넘어서 원작에 충실하되 새로운 시각과 스타일로 재조명하여 심오하면서도 매혹적인 시각 이미지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블랑쉐의 달콤한 자유가 만들어내는 생명력 넘치는 놀라운 이야기

관객의 마음 속을 파고드는 놀라운 예술성으로 표현된 무대 연출은 보는 이의 감성과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내어 판타지 동화와도 같은 놀라운 여행으로 이끈다. 뛰어난 안무가 질케 만숄트가 만들어낸 배우의 움직임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한국어 나레이션의 목소리가 공연의 몰입도를 높이며 신선한 예술적 감수성과 유머적 요소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라벤더 들판에서 만나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동화

아이들을 위한'고품격 연극'을 지향하는 연출자 쟝 랑베르 빌드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품을 구상하여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을 형성 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나의 이야기가 세대에 세대를 거쳐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이야기 속에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일단 부모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해하겠지요. 한 아이의 아빠로써 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아이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자유나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구속으로부터 해방과 같은 느낌들을 찾는 거죠. 하지만 "스갱 아저씨의 염소"는 또한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는 늑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작은 염소를 잡아 먹어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쟝 랑베르 빌드

2011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Multicultual Festival Invited Performance

How was I ever able to live in there?

Comment ai-je pu tenir là dedans ?

Produced by Comédie de Caen-Centre Dramatique National de Normandie

Based on Mr Seguin's Goat by Alphonse Daudet
A fable by Stéphane Blanquet & Jean Lambert-wild

'High-quality' performance chosen by the Festival d'Avignon of France

'How was I ever able to live in there?' is a play based on the original story of Alphonse Daudet's famous fable, 'Mr. Seguin's little goat.' Talented young producing duo, Jean Lambert-Wild and Stephane Blanquet transformed it into a dream-like performance for children. This fantastic play was highly recognized by the critics at Festival d'Avignon of France. This story of little goat, Blanquette, who escaped from her safe stable in search for freedom, has long been re-created into various tone-downed versions and used as a lesson to help children understand that they must obey their parents. But this time, our two young producers tried to convey the un-distorted messages from Daudet's original story and invite audience into the world of surreal universe with feast of visual images and poetic performance.

Brave little goat, Blanquette her sweet freedom and passion for life

The carefully designed stage decor and creative performance directed by two talented producers' imagination and fascination draw out everyone's childhood fantasy and guide the audience to the world of fairytale. Delicate move of the goat performed by Silke Mansholt with felicitous voice of Korean narrator also take the audience deep into the heart and agony of little Blanquette with a fresh new artistic interpretation on Daudet's secret humor code.

A story for all of us - Youngsters and grown-ups, rendezvous in the lavender field

Jean Lambert-Wild has been working to create 'high-quality' performance for children but has always aimed to deliver messages not only for the little, but also for the grown-ups. Such an endeavor has been highly recognized by the theatric circle, praised as a creation of emotional bridge between the children and parents.

"If this text is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t will be because it speaks to both children and parents. When I hear it, I understand it on a parental level, as a father to my children, but I also understand from a child's point of view, with their need for freedom and to break the rules. It's also a text about being an adult - coming to accept the wolf that is inside of us, accepting that he eats the little goat and living with that"

Jean Lambert-wild

staff

연출
Direction
쟝 랑베르 빌드
JeanLambert-wild

무대디자인
Stage design
스테판 블랑케
Stéphane Blanquet

안무
Choreography
질케 만숄트
Silke Mansholt